

2026
가치 만드는
국립극장

NTOK
CONNECT

국립국악관현악단 작곡가 프로젝트

8월 21일
금요일
19시 30분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26-2027

예술감독 겸 단장 채치성 지휘 김성국 위촉 작곡 김산하 박다은 박준석 이재준 정지운
예매 및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 NOL 티켓 1544-1555 관람료 전석 20,000원

차세대 작곡가의 도약을 위한 단단한 발판!

5인 5색 젠지(Gen-Z) 작곡가들의 패기가 돋보이는 국악관현악 신작 초연

국립국악관현악단은 1995년 창단 이후, 국악관현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작 역량을 갖춘 예술가의 저변 확대를 목표로 차세대 예술가 발굴·육성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국립극장 ‘가치 만드는 국립극장’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휘자 프로젝트’를 운영한 데 이어, 2025년부터는 국악관현악 분야의 신진 작곡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작곡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완성된 작품을 공모받아 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공모사업과 달리, ‘작곡가 프로젝트’는 참가자의 실질적인 창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정기 멘토링과 작곡가 워크숍, 리딩 세션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작품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실제 연주로 구현하고 보완하는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신진 작곡가가 대규모 국악관현악 편성의 실제 연주를 경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작품을 실제로 들으며 작업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강점이다. ‘2025 작곡가 프로젝트’ 참가자들 역시 “상상했던 음악과 실제 연주 사이의 간극을 좁힌 시간” “국악기의 다양한 강점과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한 계기”라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은 <작곡가 프로젝트>는 만 34세 이하 국내외 작곡가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지난 2월 제출 악보와 작품계획서를 심사해 총 25명의 지원자 가운데 8명을 1차로 선발했으며, 올해는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내부 중간 평가를 새롭게 도입했다. 지난 6월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이 8편의 작품을 직접 시연한 뒤 설문조사와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국악관현악에 대한 이해도와 작품의 완성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김산하·박다운·박준석·이재준·정지윤 최종 5인을 선정했다. 만 25세부터 31세까지 젊은 작곡가들이 각자의 개성이 넘치는 10분 내외의 창작곡을 작곡, 멘토와 연주자들의 피드백을 거쳐 완성도를 높인 뒤 <2026 작곡가 프로젝트> 공연에서 초연한다.

지난해 <작곡가 프로젝트> 지휘를 맡았던 김성국은 올해 지휘뿐만 아니라 작곡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로도 참여했다. 김성국은 “2030 젊은 작곡가가 바라보고 느끼는 이 시대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아내되, 국악기와 잘 어울리는 우리 고유의 음악언어와 어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향을 짚어줬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2025년 국립국악관현악단 상주작곡가로 활동한 손다혜·홍민웅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월 정기 멘토링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이 곡의 의도와 구조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실제 공연 현장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작곡과 편곡 등의 참여 기회를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앞으로도 신진 작곡가의 발굴과 작품 개발, 실제 무대 참여가 이어지는 국악관현악 창작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악관현악을 위한 ‘신도림역, 그 혼잡함에 대하여’

작곡 이재준

1부

국악관현악을 위한 ‘섬그늘’

작곡 김산하

국악관현악을 위한 ‘복사꽃놀이’

작곡 박다은

중간 휴식

국악관현악을 위한 ‘역음능선’

작곡 정지운

2부

국악관현악을 위한 ‘쇠의 꿈’

작곡 박준석

※상기 프로그램은 단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악관현악을 위한 ‘신도림역, 그 혼잡함에 대하여’

“지하철역 풍경, 유머 섞인 공감과 위로의 음악으로”

신도림에 12년째 거주하며 매일 이용하고 있는 신도림역.
그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 속에서 나는 예술가의 깊은 고뇌에 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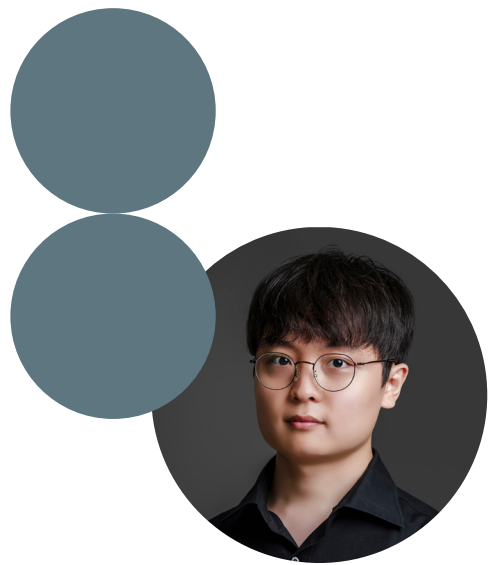
‘예술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 존재가 심연 속으로 침잠하여 무와 유의 경계에서 자신의 실존을 끊임없이
해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존재론적 가치 증명을 감행하는 행위...’

‘...인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도 예술가라서? 하지만 나는 그저 배가 고프면 햄버거를 먹고
싶은 청년일 뿐이오. 현대인의 고통은 월요일에 출근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의 자아실현은 통장에 꽂히는
월급에서 비롯될 뿐이니. 우리 집 앞 일평균 이용객 약 40만 명의 신도림역도 우리의 지옥이 아니겠는가.
물론 나는 현대문명 속에서 제일 쓸모없는 한낱 프리랜서 국악 작곡가라 직장이 없어서 출퇴근하지 않소.
그렇다고 내가 방에 틀어박혀 나만의 예술세계에 빠져 자아도취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신도림역, 그 혼잡함에 대하여’는 고통받는 현대인을 위로하는 작품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지옥인 신도림역의
풍경을 묘사하기 위해 지하철에서 들을 수 있는 개찰구 소리, 열차 도착음, 안내 음성, 수많은 말소리와 벨소리를
해체하고 가공하여 음악적 모티브로 사용했다. 각 모티브는 ‘굉장한 인트로-절규-교통카드-지옥의 상행선-
환승-굉장한 인트로(재등장)-혼돈의 하행선-내릴게요-하차-반복되는 고통(출근)’ 순서로 연주되는 여러 작은
악장들을 대표한다. ‘굉장한 인트로’에서부터 나타나는 병렬 배치된 헤미올라 리듬은 ‘혼잡함’을 나타내는 주요한
음악적 요소로, ‘교통카드-지옥의 상행선-혼돈의 하행선’을 거치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리듬이 세밀화되면서
‘하차’에서 표현될 극한의 해방감을 위한 대비적 긴장 요소가 된다. 그러나 ‘하차’의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한 채
헤미올라의 주제가 다시 등장하며 결국 평생 반복될 고통만을 암시한 채로 끝맺는다.

작곡가 이재준

서울대학교 국악작곡 학사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22년 국립국악관현악단 ‘이음음악제’ <3분 관현악>에서
신(辛)라면 협주곡 ‘라면’을 발표해 큰 화제를 모았다. 사람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유대감을 형성하는 유머와 해학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
독주 및 앙상블 등의 공연에서 꾸준히 유머러스한 작품을 선보여 왔다. 특정 스타일의 음악에 국한되지 않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와
신선한 시도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음악을 지향한다.



국악관현악을 위한 ‘섬그늘’

“제주 곶판의 선율로 전하는 치유의 힘”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제주 민속 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영등신을 맞이하고 보내며 청해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비는 곳이다. 삶이 곧 바다고 바다가 곧 삶인 이들에게 이 굿은 결코 가볍지 않은 삶의 의례다. 바다에 기대어 살면서도 그 바다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

오래도록 나는 이 굿을 책과 영상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렇게 알던 것을 음악의 재료로 삼아 곡을 써나가던 어느 날, 그 현장을 직접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거리를 둔 채 자료로만 굿을 대하는 동안, 나는 정작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 기원이 누군가에게는 한 해의 안녕을 거는 일이며, 결코 가벼이 다룰 수 없는 삶의 무게라는 것을 그때야 알았다. 그날 이후 이 곡은 나에게 전과 같은 것일 수 없었다.

이 작품에서 칠머리당영등굿은 음악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아니라, 그 굿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 국악관현악이라는 장치를 사용한 것에 가깝다. 굿을 소재로 빌려와 새로운 음악을 짓는 것과 굿 그 자체를 다시 세우려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믿는다. 곡을 이루는 선율과 장단은 대부분 현장에서 직접 채집한 소리에서 왔다.

실제 굿의 절차를 따르는 대신, 그 자리에서 직접 마주한 것들을 압축했다. 주고받는 목소리와 되풀이되는 장단이 공간을 뺏뺏이 채우고, 그 반복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쌓여 갔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향해 이 기원이 되풀이되어 왔는가. 그렇게 쌓인 소리는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굿이 그러하듯, 이 곡의 반복 또한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일에 가깝다.

곡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들의 삶인 바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마주한 굿. 어느 쪽도 나에게 더는 가벼운 소재가 아니다. ‘섬그늘’은 이 가볍지 않은 둘이 겹치고 얹히며 나아가는 곡이다.

작곡가 김산하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음악예술전공을 졸업한 뒤 동 대학원 한국음악학과 작곡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十二작곡가>(2024)에서 ‘숲속의 독백’,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2025)에서 ‘내고-달고-맺고-풀고’를 발표했다. 국악관현악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작품을 완성해 무대에 올리기까지의 과정을 경험해보고자 ‘작곡가 프로젝트’에 지원했다. 직접 보고 들은 경험을 체화해 자신만의 언어로 다시 풀어내는 것을 작곡의 본질로 삼고, 작품 세계를 꾸준히 확장해 나가는 중이다.

국악관현악을 위한 ‘복사꽃놀이’

“복사꽃 동산에 차오르는 신선들의 한바탕 흥취”



‘복사꽃놀이’은 복사꽃이 만개한 이상향에 한국 신선과 바다 건너온 외국 신선들이 모여 술과 풍류를 나누는 모습을 그린 4악장의 국악관현악 작품이다. 클래식을 전공한 내가 두 번째 국악관현악 작품을 쓰며, 오히려 가장 한국적인 주제를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그렇게 선택한 모티브가 ‘신선’이다. 지극히 한국적인 존재인 신선을 한국적으로도, 한편으로는 이국적으로도 해석하고자 했다. 제목은 복사꽃과 신선놀음의 ‘놀이’를 합친 말이다.

1악장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모든 이야기의 배경인 한국 선계의 복사꽃동산을 그린다. 글로켄슈필과 핑거 심벌의 모호한 울림으로 시작해 패턴화된 가야금과 해금의 트레몰로가 복사꽃이 흩날리는 전경을 펼친다. 반복되는 가야금 패턴은 고요한 공간에 일정한 흐름을 만들고, 한국 신선들은 그 속에서 바다 건너올 낯선 손님들을 기다린다. 2악장 ‘바다 건너 벗 오실제’는 팀파니의 트레몰로와 함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한다. 서로 다른 박자로 흐르는 튜블라벨과 가야금 패턴은 미묘한 어긋남을 만들고, 반음 중심의 선율과 화성은 긴장감을 더한다. 초대는 했지만 그들이 벗일지 적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처음 마주한 존재들 사이의 심리적 거리와 낯섬을 표현했다. 3악장 ‘춘풍과 더불어 나그네 취하니’에서는 외국 신선들이 적이 아닌, 함께 연회를 즐길 벗임이 드러난다. 앞선 긴장이 서서히 누그러지고 한 신선의 가야금 독주가 시작된다. 독주 악기들이 차례로 교차하고 술잔을 주고받듯 선율을 나누며, 서로 다른 이들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과정을 그린다. 4악장 ‘술 부어라 흥이 다시 오노매라’는 5/8박자의 창작 장단으로 신나게 시작한다. 앞에서 제시된 한국적 요소와 이국적 요소가 가장 적극적으로 뒤섞이고, 온음계와 반음계도 자유롭게 교차한다. 다양한 타악기와 빠르게 고조되는 리듬 속에서 신선들의 취흥은 절정에 이르고, 마침내 모두가 하나의 연회 속으로 녹아들며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려진다.

이 작품은 설화를 재현하기보다 음악만으로 하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는 이를 ‘영상이 없는 영상음악’으로 구상했다. 각 악장은 하나의 장면으로 기능하며, 장면 전환은 공간의 변화이자 서사의 흐름으로 다가갈 것이다.

작곡가 박다은

한양대학교 작곡과(음악학사)를 졸업했다. 2025년 제16회 ARKO창작음악제 양악 부문에 선정되어 ‘The Song of Water’를 선보였다. 2024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十二작곡가>에서 국악관현악 위촉곡 ‘가짜 인절미’를 초연하며 서양 관현악과는 또 다른 국악의 매력을 발견했다. 전통의 울림과 현대의 감각이 공존하는 국악관현악을 더욱 깊이 탐구하기 위해 이번 ‘작곡가 프로젝트’에 지원했다. 클래식 작곡 전공자로서, 국악관현악을 새로운 음향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이를 통해 관객에게 신선한 감동을 전하고자 한다.

국악관현악을 위한 ‘엮음능선’

“산을 오르내리는 여정, 농악으로 담아낸 삶과 자연”



‘엮음능선’은 하늘과 산에 맞닿으러 가는 길을 그린다. 장단의 흥에서 출발해 ‘자연스러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농악의 장단과 구조를 통해 풀어낸다. 자연이 순환하는 규칙을 농악의 구조로 옮기고자 했다. 비가 내려 계곡이 흐르고 계절이 지나 잎이 돌아 녹음을 거쳐 상록에 이르듯, 곡 전체가 장단을 토대로 반복과 변화, 확장으로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 전체적으로 우도농악 장단이 펼쳐지며 연주되는 특징을 살려 흘러가듯 전개되는 음악적 호흡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판에서 농악패들이 달팽이진을 그리며 말아가는 모습처럼, 음악 역시 흘러가며 모이고 풀리고, 다시 반복되고 확장되는 구조를 갖는다.

1악장 ‘입산과 인사’는 호남우도농악의 시작을 빌려 인사-청령부르기-일채-휘모리로 이어지며 산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딛는다. 생동하는 숲의 초입에서 중턱까지 오르는 상쾌한 발걸음과 함께 점차 깊어지는 호흡을 그린다. 2악장 ‘송신(送信)과 바람’은 오채질굿-굿거리-육채로 구성된다. 변칙적인 호흡 속에서도 본연의 질서를 찾아가며, 능선을 타고 흐르는 치배들의 움직임에 담아낸다. 산을 향한 바람을 바람에 실어 보내듯, 호남우도농악의 펼쳐지는 ‘기덕’과 웃다리농악의 육채를 통해 몰아치기보다 흘러가며, 점차 무거워지는 발디딤을 딛고 하늘을 향해 나아간다. 3악장 ‘연풍대(延風臺)’는 굿거리-양산도-삼채로 이어지며, 상모가 돌아가듯 치배들이 원을 도는 몸짓으로 정상을 앞둔 급경사와 그 끝에서 맞는 해방감을 그린다. 바람을 타듯 하늘과 땅이 맞닿는 정상에서, 차오른 숨을 몰아쉬며 마무리한다.

산을 오르며 마주한 상쾌함과 고통, 그 끝에서 찾아오는 해소는 삶의 보편적인 모습과 닮아 있었다. 산의 변화하는 소리와 질감, 그 안에 존재하는 규칙을 음악의 재료로 삼아 여러 장단을 하나의 능선으로 엮었다. 완만한 능선에서 정상으로 이어지는 길처럼, 음악은 인사로 시작해 다시 인사로 돌아온다. 과거의 방식을 빌려 지금의 나와 우리를 풀어내어 관객과 이야기하는 곡이 되기를 바란다.

작곡가 정지운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를 거쳐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학과 작곡전공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시각예술·무용·애니메이션 등 타 장르와 국악을 결합하는 협업을 지속해오며, 전통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과 이를 국악관현악이라는 거대한 구조로 확장하고자 하는 예술적 갈망을 품게 되었다. 머릿속 구상이 실제 국악관현악 작품으로 편성되고 연주되는 과정을 경험하고자 ‘작곡가 프로젝트’에 지원했다. 전통이 일상에서 편안하게 향유되는 보편적 문화가 되길 바라며, 연주자가 음악 그 자체에 몰입할 수 있는 작품을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악관현악을 위한 ‘쇠의 꿈’

“깊은 산속, 오랜 꿈에서 잠들었던 쇠가 깨어나는 순간”



“아직 불도, 망치도 달지 않은 쇠(鐵)는 산의 몸속에서 광물인지 생명인지 모를 상태로 아주 느리게 꿈을 꾸다.”

작품의 소재가 되는 ‘불가사리’는 우리나라 설화에 등장하는 존재다. 호랑이와 같은 몸에 코끼리를 연상시키는 긴 코와 뱀과 같은 피부 등 여러 동물의 특징이 뒤섞인 기이한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작은 존재에서 시작해 철을 먹으며 점차 몸집을 키워나간다. ‘쇠의 꿈’은 이러한 불가사리의 설화에서 출발하되, 원전의 이야기보다 더 이전의 시간을 상상한 작품이다. 작은 존재가 철을 먹으며 성장하는 기존의 이야기와 달리, 깊은 산속에 묻힌 하나의 쇠(鐵)가 오랜 시간 꿈을 꾸며 서서히 생명력을 얻고, 마침내 거대한 존재로 현현한다는 새로운 서사를 구성했다.

작품 전반에는 동부 산악지방의 전통 선법인 ‘메나리토리’를 주요 음악적 소재로 사용했다. 메나리토리가 지닌 산악지방의 음악적 색채를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산’과 연결하고, 이를 서양음악의 프리지아와 로크리아 선법과 결합해 선율과 화성을 구성했다. 전통적인 메나리토리의 색채를 바탕으로 화성과 음향을 확장, 쇠가 꿈꾸는 낮설고 신비로운 세계를 음악적으로 그려보고자 했다.

작품은 네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씻숨’에서는 메나리토리와 여러 선법들을 사용해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불가사리의 묵직한 기운과 거대한 숨결을 표현했다. 두 번째 ‘꿈꾸는 쇠’에서는 확장된 화성과 불협화음을 통해 몽환적이고 어두운 분위기를 그렸다. 또한 대피리와 저피리의 낮고 거친 음색으로 깊은 산속에 잠든 쇠의 무겁고 느린 숨결을 표현해봤다. 세 번째 ‘산은 쇠를 품고’에서는 경기도당굿의 도살풀이장단을 바탕으로 산속에서 서서히 생명력을 얻어가는 모습을 그려봤고, 마지막 ‘불가살(不可殺)’에서는 긴 꿈에서 깨어나 거대한 존재로 현현하는 불가사리의 모습을 강렬하고 웅장한 음향으로 담아냈다.

작곡가 박준석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국악작곡 학사과정을 밟고 있다. 2025년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신작 공모에 당선되어 수상음악 페스티벌 <웨이브>에서 ‘흐르샤’를 초연했다. 작품이 발전하는 창작 과정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껴 ‘작곡가 프로젝트’에 지원하게 되었다. 전통음악이 지닌 고유한 시간성과 현대적 감각의 공존을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 단순히 전통 어법을 재현하는 데 머물지 않고, 오늘의 감각 속에서 새롭게 살아 숨 쉬는 음악을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지휘자·멘토 소개

퍼실리테이터·지휘

김성국



중앙대학교 국악과와 동 대학원에서 작곡을 전공했으며 중국 중앙음악원에서 작곡으로 연수과정을 수료했다. 2016년 국립국악관현악단 상주작곡가와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제16대 단장을 역임했고, 현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마음(心)’으로 국악작곡축제 최우수상(2006), ‘Love Affair’로 서울시무용제 음악상(2008) 등을 비롯해 2013년 ‘공무도하가’와 2019년 ‘영원한 왕국’으로 대한민국작곡상 우수상을 두 차례 수상했다. 국립국악관현악단과는 ‘공무도하가’(2012), 남도시나위에 의한 3중협주곡 ‘내일’(2015), 국악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원(願)’(2018) 등 오랜 시간 협업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현대적인 어법을 선보이면서도 전통음악의 깊은 맛을 놓지 않으며, 대중성과 실험성 사이의 균형이 잘 잡힌 국악관현악 작품을 선보이는 것으로 명망이 높다. 삼도농악, 경기도 도당굿, 동해안별신굿과 같은 한국 전통 장단을 재료로 꾸준히 자신의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로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잊히고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기록하는 작업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국악관현악 작곡뿐만 아니라 다수 창극·소리극·뮤지컬·무용 작품 속 음악 작업을 통해서 동시대 관객과 폭넓게 교감하고 있다.

멘토 작곡가 손다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음악작곡과, 동 대학원 음악극창작과 협동과정을 졸업했다. 2020년 국립극장 창작지원사업 ‘함께 가는 길’, 제13회·제15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 부문 선정, 제42회 대한민국작곡상 대상과 2024년 KBS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하며 작곡가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다.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협업한 대표작으로는 ‘하나의 노래, 애국가’(2020), 25현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어린 꽃’(2021) 등이 있다. 2025년 상주 작곡가로 선정되어 활동하며 국악관현악을 위한 ‘대적’(2026)을 발표했다.

멘토 작곡가 홍민웅



중앙대학교 한국음악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전문사를 졸업했다. 2018 신진 작곡가를 위한 창작국악축제에서 수상한 데 이어, 2020년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첫선음악회 창작공모, 제13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국악 부문에 선정되는 등 주요 무대에서 성과를 쌓으며 창작 역량을 입증해 왔다. 국립국악관현악단과는 ‘시간의 색’(2021), ‘화류동풍’(2022), 타악 협주곡 ‘파도: 푸른 안개의 춤’(2024) 등을 작업하며 주목받았다. 2025년 상주 작곡가로 선정되어 활동하며 국악관현악을 위한 ‘귀로’(2026)를 발표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1995년 창단된 국립국악관현악단은 국립극장 전속단체로 동시대 음악을 창작하고, 수준 높은 음악으로 전 세계 관객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는 연주 단체다. 유구한 역사 속 개발되고 전승돼 온 한국 고유의 악기로 편성된 국립국악관현악단은 국내외 저명한 작곡가 및 지휘자를 영입해 60여 명의 전속 연주자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통 음악의 현대적인 재해석, 한국의 정신과 정체성을 담은 사운드, 전 세계 관객에게

감동을 전하는 독자적인 레퍼토리로 차별화된 음악회를 기획·개발하여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현재 8대 예술감독 겸 단장 채치성과 함께 국립예술단체다운 품격이 있는 공연,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국립국악관현악단만의 정체성이 담긴 공연을 목표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창작 작업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2026 작곡가 프로젝트> 연주자

악장	안수련해금	거문고	손성용수석 신지희부수석 오경자 이현경 마현경
소금	김한백부수석	소아쟁	강애진부수석 김다인
대금	박경민수석 김대곤부수석 김병성 장광수 배근우 박병재	대아쟁	서보람수석 정재은 허유성 박기영 현경진
피리	강주희수석 최훈정부수석 홍지혜부수석/생황 위재영 이상준 오경준저피리	타악	연제호수석 이유진부수석 이승호 김예슬
해금	서은희수석 김영미 장재경 노연화 이은경 허은영 지현정 이경은 변아영	양금	최취선
가야금	문양숙수석 김미경부수석 송희선부수석 임현 서희선 한향희 채운정	객원연주자	서예림피리 김준태피리 박새은대피리 고영민타악 유지은타악 이필경타악 고수정콘트라베이스
		악보	이한빛

국립극장 제작진

국립극장

극장장(직무대리)

김석일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겸 단장

채치성

책임프로듀서

이승재

프로듀서

이주미 이정연

총무

안은아

악기

이재석

악보

배새롬 이한빛

청년행정인턴

최영서

공연기획부

공연기획부장

이동현

전속단체공연지원팀

전속단체공연지원팀장

채인영

전속단체공연지원팀

김영숙 박양미 이종민 박명빈

물리치료실 운영

송기현

공연기획팀

공연기획팀장

권대연

행정

이용희 송성남 이소라

책임프로듀서

이재금

마케팅

박하은 강현주

하우스매니저

이선옥 박지현 변해진 임지은

티켓마스터

정연정 오윤지 김재경

공연안내

정지윤 이인영 이지윤

유아놀이공간

이은혜

무대예술부

무대예술부장

손후윤

무대기술팀

무대기술팀장

이정행

행정

김홍석

안전관리

최성훈

무대감독

정대교

기계감독

이정환 이보한

기계기술지원

김진년

조명감독

박문섭

조명프로그램·오퍼레이터

이준

조명기술지원

원재성 주영석 공미진

음향감독·디자인·오퍼레이터

이상현

음향오퍼레이터

진하명

음향기술지원

김은희

영상감독

임영선

무대미술팀

무대미술팀장

김재영

행정

김성식

장치감독

유민석

장치기술지원

강승구 강규한 김정규 김항원 김선우

윤하은 황인석 최재림 김강현

작화감독

박순용

작화기술지원

김유리 최다정

소품감독

홍재민

소품기술지원

채수형 박현이 김민주

장신구감독

이주선

장신구기술지원

김은경

의상감독

조근하

의상기술지원

김효영 유상현

무대예술지원센터감독

박일천

무대예술지원센터기술지원

한형석 김혜선 조가현 오가연

교육전시부

교육전시부장

김석일

홍보팀

홍보팀장

방강덕

행정

정재우

책임프로듀서

우다솔

홍보팀

차경연 정선영 박은영 구해나 김은채

전산

이주한 안수진 정일석 노승관

홈페이지

유정수

사진

이다빈

홍보물 제작

홍보물디자인

스튜디오홍단

홍보영상

스튜디오 것

옥외홍보물

대일특수